



방송



사심 인터뷰

정병희

KBS 미디어기술연구소
소장

최근 KBS는 조직개편을 통해 콘텐츠 중심, 공영미디어로의 진화에 중점을 두었다. 조직 구조를 일원화하고, 사업과 업무 기능을 통합하며,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미디어기술연구소(기존 미래기술연구소)도 전략 기획실로 배치되어 방송과 미디어 관련 기술연구영역을 더욱더 확장할 예정이며, 새로운 수장으로 정병희 소장이 임명되었다. 정병희 신임 소장의 생각과 비전을 통해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와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병희라고 합니다. 여성 직원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방송기술직 방송기술연구요원으로 1996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입사한 지 24년째를 맞고 있네요. 지내온 시간을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KBS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소박한 연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석사 모교인 KAIST 전자전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창 회사 다니기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 회사의 선배들이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선배들이 추천해준 KBS 여성협회장을 했었습니다. 팀장과 협회장,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병행하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이를 통해 소박한 연구원이었던 제가 곳곳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회사의 제도에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올해 3월 1일 자로 미디어기술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소감을 들어볼까요?

조직개편 이후에 맡은 소장 역할이라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요즘 KBS에서도 보직자의 기수가 젊어지고는 있지만, 능력 있는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 연구소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여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연구소의 모습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학력

1994. 2.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1996.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2006.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박사

주요경력

現 KBS 미디어기술연구소 소장
2006 ABU 논문대상 수상
2015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수상
2005~2010 사내 표준화 참여
논문 및 기고문 80편 이상, 발표 다수
관심분야: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 콘텐츠 처리기술,
미디어전송/서비스 기술

연구소 근황과 최근 조직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나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연구소에 요구되는 역할이 많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소개하고, 방송 전반에서 나온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어야 하며, 때로는 시스템 설계, 신규 서비스 기술 개발과 기술 전략 수립 등 정말 멀티 플레이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요즘 절 실합니다.

조직개편 이후 이런 쏟아지는 요구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대응해서 연구소의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사업본부에서 전략기획실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회사의 전체 기획을 담당하는 본부로 자리를 옮긴 만큼,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요구되는 기술 이슈들을 보고 기여하라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소에서 미디어기술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018년 이후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 Public Service Media로의 전환과 맞물려, 방송과 다양한 매체의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술로 연구의 내용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란?

제가 생각하는 Public Service Media는 시청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청자들의 편의와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의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시청자들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KBS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시청자들보다도 더 새로움을 추구하고,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KBS가 추구하는 공영미디어는 새롭고 신선함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누구보다 실험적으로 먼저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BBC의 미디어 서비스 중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소장으로 발령받기 직전 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연히 KBS 인재개발원의 요청이 있어 BBC의 인공지능 분야에 최근 연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최근, BBC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들은 '객체기반 방송(Object-based Broadcasting)'이라는 개념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비디오, 오디오, CG 같은 요소들을 객체라 보고 이들을 별개로 가공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아직 실험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Expander라는 서비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뉴스 전문을 읽거나 시청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부분만 한 단계 더 자세한 뉴스를 읽길 원합니다. BBC의 Expander는 관심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펼쳐지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텍스트와 비디오의 동기가 맞추어져 있어 해당하는 영상 부분으로 건너뛰기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BBC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바꾸고, 기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이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변화까지도 생각하는 BBC의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기술연구소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방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된 연구소 각 팀의 연구 주제로는 AI&데이터, VR 콘텐츠 제작/중계, 5G와 모바일 융합 네트워크, IP 기반 제작 플랫폼 기술, 재난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기술 등이 있습니다. 모두 굵직한 주제들이지만, 연구소의 적은 인원으로 수행 가능하고, KBS에서 가장 시급한 내용을 위주로 우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VR 콘텐츠 제작/중계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후반 작업보다는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제작진과 우선 시도해보는 등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서비스를 통해 제작진들은 새로운 제작 아이디어를 얻고, 기술 제작진과 연구원들은 당장 필요한 기술과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들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제작 등 타 부서와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제작 기술뿐 아니라, 기획/전략 부서, 시스템 기술 부서 등 사내의 모든 부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다양하기에 연구 분야와 단계에 따라 카운터파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경우에는 제작부서와 협업하게 되며, 전송 기술의 경우 회사 송신 기술 부서뿐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이





추억이 된 미국 생활에서의 가족 여행

“

5G나 AI는 방송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5G는 움직이는 자동차, 집안, 길거리 등의 많은 부분을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기획/전략 부서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을 오가며 협업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른 회의를 통해 각 부서가 역할을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협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회사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접할 때가 연구원들이 제일 뿌듯한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5G, AI 등 미디어가 당연한 현실에서 방송의 미래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시는지요?

5G와 AI는 방송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5G는 움직이는 자동차, 집안, 길거리 등의 많은 부분을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또한 고급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므로 교육, 정보, 오락 등의 목적에 따른 색다른 콘텐츠 제작 시도도 병

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연구소가 이끌어주고 그동안 쌓아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가 곁들여질 때 진정한 방송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른 변화를 우리가 흡수해야겠죠?

화제를 바꾸어, 소장님 개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바쁘신 와중에도 가정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요?

사실 결혼이 많이 늦어서 아이들이 어립니다. 곧 중학생이 될 큰 딸아이와 이제 초3인 둘째 딸이 있습니다. 바쁜 엄마를 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같이 엄마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주말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퇴근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주는 정도입니다. 후배들에게 육아 노하우를 알려주기엔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터라, 조언보다는 후배들의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힘낼 수 있게 북돋워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애기를 들으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연수로 인해 1년여 미국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넓은 미디어 세상을 보고, 개인적인 공부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때 가족들과 아이들 방학 때 자동차 여행을 다녔던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드넓은 땅 만 큼이나 경이로운 자연환경이 많아 자동차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때의 여파인지 지금도 아이들은 자동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생기면 특별한 목적지가 없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낯선 곳에서 그곳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여가생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무작정 자동차 여행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